

소그룹 교재

소그룹 교재 1	4월 1일
제목	만우절에 진실을 말하다
본문	요한일서 1:5-10
찬송가	새 502 (통 259) 빛의 사자들이여 새 505(통 268) 온 세상 위하여 헌금송 - 새 508(통 270)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여는 질문	만우절에 가장 하고 싶은 거짓말, 또는 기억에 남을 만한 거짓말이 있으신가요? (만우절에 하는 거짓말은 재미를 위한, 놀이를 위한 것이지요. 학창시절에 했던 재미난 사건들과 현재도 재미를 위해서 했던 거짓말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여기에, 혹 재미로 시작된 거짓말이 심각한 상황을 불러 일으킨 경우,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었던 경우가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최종적으로 거짓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기쁨, 위로, 축복, 은혜를 끼친적이 없으신지, 이것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물어보세요.)
본문 이해	<p>요한일서는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사상들에 대해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예수그리스도)안에 거함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이단사상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로써의 영이 하늘에서 임했다”는 사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 영으로써만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사상”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사상들이 생겼냐하면, 인간의 이해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마 16:16)”이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상들에 요한일서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존재하시다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음을 다시금 증거하고 있습니다(1:2). 특히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다시금 상기시키며(1:5-6), 거짓된 것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p> <p>“사킴”이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 사킴, 공유, 참여” 등의 의미의 단어로써, 7 절에서는 “하나님과 사킴이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성경엔 “있다”를 “가지다(have)”동사로 표기하고, 헬라어로는 [에코]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있지요. [에코]라는 단어는 “붙잡다”란 어감을 담고 있는 단어이기에, 7 절 “하나님과 사킴이 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사킴을 붙잡듯이 가지다” 또는 “하나님과의 사킴을 붙잡듯이 소유하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사킴에 매달리다” 정도로까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 “하나님과 사킴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교제에 매달리는 사람들”입니다.</p> <p>요 3:21,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과 사킴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빛의 자녀임을 검증하려 노력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이든, 빛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해내고, 어둠을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p>
말씀속으로	<p>1. 하나님과 사킴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요일 1:8-9)</p> <p>(“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p>

	<p>2. 빛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요일 1:10)</p> <p>(“...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중시합니다.)</p>
<p>삶 속으로</p>	<p>1.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이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p> <p>(참고, 레 19:11, 잠언 14:5, 17:4,7, 30:6, 로마서 3:1-8.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을 구분하셨습니다. 속이는 것은 남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분명히 나쁜 일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더라도 거짓말은 거짓말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결국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행하는 “하얀 거짓말”은 결국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선, 거짓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여 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라, 인간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깨닫지 못한 상태를 말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수 있음을 말한 겁니다. 이에 악한 이들이 선을 돋보이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고 할수도 있겠지만, 이는 선한 의도를 가장한 악행이기에 정죄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한 의도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p> <p>2. 선의의 거짓말이 용납될 수 없다면,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p> <p>(참고, 잠 14:25, 25:19-20, 마 5:4. 진실을 이야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만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때문이지요. 진실하지 않은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 순간은 지나가겠지만, 결국 그들을 환난에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순간의 위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온전히 애통하며 주를 찾는 자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진실만을 이야기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귄이 있는 이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p>
<p>암송 구절</p>	<p>요한일서 1:5,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p>
<p>자녀와 나눔</p>	<p>만우절에 어떤 거짓말을 해 보았니?</p> <p>(만우절에 재미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임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 재미있고, 귀여워 보이는 거짓말이, 일상을 기쁘고 신나게 해 줄수도 있어 보이지만, 재미와 흥미를 추구하는 거짓말과 행동은 결국 더 큰 거짓말과 장난으로 나아가지요. 선생님이 호출했다는 거짓말과 친구의 책을 숨기는 장난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규모가 더 커질수 밖에 없지요. 진실함이 친구를 기쁘게 하고, 사랑이 이웃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수 있습니다.)</p>

소그룹 교재 2	4월 8일
제목	변치 않은 다윗의 마지막 모습
본문	열왕기상 1:1-4
찬송가	새 310 (통 410) 아 하나님의 은혜로 새 338 (통 364)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헌금 - 새 351 (통 389)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여는 질문	성서에 기록된 왕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또는 좋아하는 왕은 누구인가요? (좋아하는 이유를 꼭 물어 보시면서, 어느 본문의 말씀에 이끌려 좋아하시게 되었는지 물어보세요. 혹, 왕들 가운데 개인적인 상황과 형편에 동질감을 느끼게 되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 그 배경을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좋은 인상 때문일 수도 있고, 나쁜 인상일 수도 있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본문 이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왕들의 역사를 다룬 본문들입니다. 본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에는 차이가 있지만, 위의 두 역사서가 쓰여진 시대적 상황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의 사건, “바벨론 포로기”에 이르게 됩니다.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기 때에 쓰여졌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가 왜 무너졌는가?”에 대한 비판, 즉 각 왕들의 죄에 대한 기록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역대기서는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의 재건의 때에 쓰여졌기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요. 성전을 재건하며, 다윗으로 연결된 유다 왕조의 정통성과 명분을 찾으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 관점의 차이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목상하는 열쇠가 됩니다. 다윗의 노년의 보여주면서 시작한 열왕기상은,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말씀을 목상하는 이로 하여금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하지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변치 않는 것이 있음을, 마지막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왕상 15:5 을 통해서 다시금 다윗이 다른 왕들과는 다름을, 보여줍니다: “이는 다윗이 헛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늙은 다윗의 모습이 애처로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모세의 마지막(신 34:7), 여호수아의 마지막(수 24:15), 기드온의 마지막(삿 8:22-27),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삼상 3:2),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삼상 12), 을 함께 목상해 보시면서, 삶의 마지막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과 그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말씀속으로	1. 왕궁의 시종들이 늙은 다윗을 섬기려고 어떤 일을 사용했나요? (1:1-2) (수넬 여자 아비삭에게 시종을 들게 했습니다) 2. 시종들이 왕에게 한 일이 다윗에게 유혹이 되었을까요? 아닐까요? (1:4) (“심히 아름다워”라는 표현은, 사무엘하 11:2 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바라볼때와 같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행동하지요.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분명 유혹은 있었지만, 유혹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p>삶 속으로</p>	<p>1. 다윗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교회 안과밖의 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올 것을 예견하였다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까?</p> <p>(잠언 16:31, 20:29 절과 디도서 2:2 절을 참고해 보세요. 삶의 이치를 깨달아 세월을 보냈다면, 젊은이들과 달라서 힘은 없지만, 아름다운 “백발 – 영화의 면류관”을 얻었겠지요. 이는 머리 색깔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서 살아온 백성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말씀과 기도로 삶의 고비를 넘어온 결과로써, 더욱 기도와 말씀에 정진하며 자녀와 이웃을 말씀으로 가르칠 것입니다(왕상 2:1-4). “할 만큼 했으니 쉬자”는 마음은 성경에 부합하는 마음이 아니며, 이는 지금껏 신앙의 여정에서 준비가 덜된 모습입니다.)</p> <p>2. 현재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나이라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p> <p>(전도서 12:1-5 절, 잠언 3:1-4, 7:1-5 절을 참고해 보세요. 청년의 때, 즉 힘이 있고 기억력이 있고 열정이 있을때에 창조주를 찾으려, 가르침을 받아 마음판에 새겨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다윗의 유언이기도 합니다(왕상 2:1-4).)</p>
<p>암송 구절</p>	<p>열왕기상 2:3, “네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p>
<p>자녀와 나눔</p>	<p>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써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가요?</p> <p>(“부모님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싶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은 드물겁니다.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이들 가운데서 누가 존경스러운지, 왜 존경스러운지 물어봐주세요. 또, 존경할만한 기독교인이 되고 싶은지도 물어봐 주세요.)</p>

소그룹 교재 3	4월 15일
제목	성전과 예배당 (1) - 예배당은 잘 꾸미면 않되나요?
본문	열왕기상 6:14-38
찬송가	새 221 (통 346)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새 218 (통 369)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헌금 - 새 213 (통 348) 나의 생명 드리니
여는 질문	교회들이 많은 예산을 드려서 예배당을 꾸리는데, 때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배당은 잘 꾸미면 않되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오랜 전통 가운데, “성전”이기에, “제단”이기에 잘 꾸며져야 한다는 분들도 있지요. 외형적인 성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사흘안에 세워진 성전은 우리 마음에 있기에 예배당은 꾸밀 필요가 없다고 말할수도 있습니다.)
본문 이해	솔로몬이 외벽을 세우고, 각 층을 구분지으면서 성전의 틀이 완공되었습니다. 이후에 왕상 6:14 절 부터, 내부공사를 시작합니다. 모든 나무는 백향목으로 사용하였고, 성소는 금으로 입혔으며, 제단도 금을 입혔습니다. 성소의 외벽에는 꽃 문양을 만들어 달았고, 문짝도 금으로 입혔지요. 금으로 입히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화려하게 성전의 내부와 성소를 장식했습니다. 왜 성전을 좋은 나무와 금과 좋은 것으로 장식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지으실 때도 금과 각종 귀한 것들로 성소를 짓게 하셨습니다 (출 25-28 장). 마찬가지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을 때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지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때, 그들에게 있던 모든 귀한 금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출애굽 할때 애굽의 사람들로 부터 받은 것들이고(출 12:35-36), 이는 출애굽하기 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뜻이었지요(출 3:22). 광야로 나왔을때, 얻은 금과 패물들을 보면서 새로운 인생을 꿈꿨을 겁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금과 패물이 아니었지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물과 음식이었습니다. 이들이 먹을 물과 음식이 없어서 불평을 할때, 자신들에게 있는 금과 패물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지 깨달았을 겁니다. 일용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공급받으면서, 자신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하나님으로 부터 왔음을 깨달았겠지요. 모세가 성소를 지을때, 자율적으로 각종 금과 패물을 가져오는 백성들을 보며, “여호와와 의 것을 여호와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성전의 내부를 장식할때, 이와 같은 마음으로 했겠지요. 성전 건축도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이고, 성전을 짓는 자재들도 공급받으니,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을 얼마나 멋지게 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의 것을 여호와께 드립니다”라는 마음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있으면 좋고, 저것도 있으면 좋고, 이왕이면 좋은게 좋지, 장만할 때 한꺼번에 사야 좋다”라는 식의 마음으로 성소와 성전을 꾸미지 않았겠지요. 따라서, 현재의 예배당을 꾸밀 때에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의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당이 꾸며진다면, 분명 정도를 넘치지 않게 아름답게 꾸며질 것입니다.
말씀속으로	1. 상상해 보십시요. 성소의 어느 부분이 가장 화려하게 지어졌나요?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 것 같으신가요?

	(상상에 맞기겠습니다. 하지만, 성소의 안과 밖의 마루가 금으로 입혔다고 했으니(6:30) 바닥이 번쩍번쩍 했겠지요.)
삶 속으로	<p>1. 성소가 지어질 때, 솔로몬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왕상 6:12-13)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이 솔로몬의 언약으로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성전을 보면서, 언약을 새롭게 바라보며 마음에 결단을 했을 겁니다.)</p> <p>2. 여러분은 교회의 예배당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예)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하시나요? 아니면, 얼마의 예산이 들었는지 생각하시나요?</p> <p>(각자 느낀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예배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언약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결국 예배당을 장식할때에 불필요한 논쟁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p>
암송 구절	왕상 6:12-13,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녀와 나눔	<p>다니는 교회(건물)에 오면, 무엇이 가장 먼저 눈에 띄니? 무엇이 가장 마음에 드니?</p> <p>(마가복음 11:17,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이들의 눈으로 교회를 보면 분명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교회의 건물이 지어질때 무엇을 추구했는지, 또는 어떤 느낌을 갖게 하는지, 교회건물이 지어질때의 마음 상태와 현재 교회건물을 채우고 있는 모습들이 그나마 객관적으로 평가될 듯 합니다.)</p>

소그룹 교재 4	4월 22일
제목	성전과 예배당 (2) - 성전과 예배당이 다른가요?
본문	열왕기상 8:22-53
찬송가	새 212 (통 347)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새 214 (통 349)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헌금 - 새 216 (통 356) 성자의 귀한 몸
여는 질문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은 성전인가요? 예배당인가요?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미론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성전”의 목적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막 11:17)과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요 2:19)이 대화의 중심이 되겠지요. 또한, “교회”란 무엇인지(마 16:18, 고전 1:2, 엡 1:23)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누어질 것입니다.)
본문 이해	<p>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좋게 여기셨습니다(대하 6:8). 다윗이 성전을 짓기로 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좋게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보시고, 이것을 좋게 여기셨다는 의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원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성전이란, 거룩한 곳, 구별되어진 곳,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세워질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생각하는 거룩한 상태였고, 다른 것과 구별되어진 상태였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거룩하다 여기시고는 그의 마음에 품은 생각 - 즉,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겁니다.</p> <p>요약하자면, 사람이 짓는 교회 건물, 예배당이 성전으로써 불릴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과 이름을 품은 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이 성전이자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마 5:8),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모신 성전으로써의 역할을 하며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서 건물이, 교회당이, 예배당이 성전으로 불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손님으로만 모시고 갖가지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놓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 보시기에 성전을 시장으로 바꾸어 놓은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에, 우리를 성전이라, 교회라 부를수 없게 됩니다.</p> <p>솔로몬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솔로몬은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으며, 거룩함을 회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야 하는 곳임을 알았지요. 성전으로써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가 있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들어달라고 솔로몬은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훗날, 솔로몬이 이방여인을 마음에 품고는 성전으로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분명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성전의 의미와 진정한 기도의 모습은 밝히 드러났습니다.</p>
말씀속으로	<p>1.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인가요? (왕상 8:29)</p> <p>(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이들이 성전이고, 교회이고, 예배당이 됩니다.)</p>

	<p>2. 성전의 의미를 기억해내며 기도할 때, 동반되는 고백은 무엇일까요? (왕상 8:31, 33, 35, 38, 42, 47)</p> <p>(맹세/ 주의 이름을 인정/ 주의 이름을 찬양, 재앙을 깨닫고, 주의 크신 이름, 죄를 고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임과 동시에, 인간이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고백이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p>
삶 속으로	<p>1. 기도시에, 성전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기도하시나요?</p> <p>2. 기도를 할때, 방해를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잡다한 생각들로 마음이 시장이 된 것을 느끼실때는 어떻게 기도하시나요?</p>
암송 구절	<p>왕상 8:30,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p>
자녀와 나눔	<p>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과 부모님께 갖고 싶은 것을 사달라고 요청과 어떻게 다를까요?</p> <p>(무엇인가 갖고 싶은 것이 있을때, 어떤 마음으로 부모님께 요청하나요?라는 질문과 함께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심지어 조건도 내어 놓는데, 이때의 마음을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요청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차이가 무엇일지 생각하게 도와주세요.)</p>

소그룹 교재 5	4 월 29 일
제목	비천함을 깨달은 아합 왕
본문	열왕기상 21 장
찬송가	새 254 (통 186) 내 주의 보혈은 새 259 (통 193)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헌금 - 새 274 (통 332)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여는 질문	<p>“스스로 비천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p> <p>(참고, 시 10:17, 22:26, 107:12, 147:6, 잠언 15:33 에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아나브]이며, “억압된, 상징적으로 마음이 온화한, 환경에서 가난한” 이란 어감을 갖고 있는 “겸손함/비천함/온순함”입니다. 이는 스스로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겸손함이지요. 잠언 11:2, 18:2 에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짜나]이고 단어의 의미는 유사하나,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어감이 “굴복감을 주다”이니, 어쩔수 없는 상황에 처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단어 겸손은 헬라어 [타페이노스]입니다. 마태복음 11:29 절에 등장하는 이 단어는 이와 같은 어감을 갖고 있습니다: “짓눌린, 굴욕감을 느끼는 환경이나 배열에 대해, 천한, 낙담시키는, 초라한, 낮은 신분의 등급, 겸손한”. 의미는 “땅에서 멀리 떨어져 올라가지 않은/ 낮은, 우울한, 겸손한, 비굴한” 입니다. 예수님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지요. 또한 엡 4:2, 빌 2:3, 약 4:6, 뱀전 5:6 에서 제자들에 의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p>
본문 이해	<p><4 월 28 일짜 묵상과 연결됩니다></p> <p>열왕기상에서 아합왕은 악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괴롭히고, 포도밭을 얻기 위해서 나봇도 죽게하고, 선지자 미가야도 괴롭힌 왕. 그가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아 내려진 심판의 경고를 듣고는 회개(?) 합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나, 기록된 말썽을 보면, 그는 율법대로 “옷을 찢고 굵은 베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베에 누웠습니다(왕상 21:27)”. 그리고 이 모습 때문에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합의 어떤 모습을 귀하게 여기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을까요?”</p> <p>하나님께서서는 많은 이들에게 마지막까지 돌아설 기회를 주셨습니다: 엘리 제사장, 사울 왕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돌아온 사람은 소수였지요. 아마도, 아합이 그들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가 진정으로 돌아왔는지, 그의 삶이 바뀌었는지 기록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심판의 경고가 드리워졌을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은지, 비천한지, 빈곤하고 초라한지”를 느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겸비하다” 하셨고 좋게 여기셨습니다. 마치, 니느웨의 백성들과 같이 돌아오는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요시야 왕(왕하 22:19-20), 르호보암 왕(대하 12:6-7)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 하나님의 재앙을 피합니다.</p> <p>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많은이가 고개를 숙이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높은 위치인데 자신을 낮추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낮을 대로 낮아져서 스스로 느끼기게 “자신의 비천함=스스로 굴욕감”을 느끼는 모습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1:19 절,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마음이 “겸손”하다고</p>

	<p>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타페이노스]인데, “짓눌린, 초라한, 낮은 신분의 등급”이란 어감을 갖고 있으면서 “낮은, 겸손한, 비굴한”이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무엇이 겸손인지”를 친히 보여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겸비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굴욕감을 갖는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모습이며, 이때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게 됩니다.</p>
말씀속으로	<p>1. 아합은 어떻게 악한 왕으로 기록되었을까요? (왕상 21:25-26)</p> <p>(스스로를 팔아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며 아내 이세벨의 충동 때문입니다)</p> <p>2. 아합왕이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왕상 21:25-26)</p> <p>(아마도, 우상 숭배한 것과 아내의 충동에 넘어간 것을 회개했을 겁니다.)</p>
삶 속으로	<p>1. 이웃분들에게 겸손하단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어떤 상황에서 들어보셨나요?</p> <p>2. 스스로 겸손함을, 비천함을 고백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p> <p>(사도바울의 고백에 이와 같은 고백이 많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딤후 1:15)”,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롬 7:22-25)” 바울의 고백은 죄인이 죄를 깨달을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스스로의 비천함, 나약함”의 입니다. 또한, 죄인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느낄때 고백되어지는 마음이지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함입니다.)</p>
암송 구절	<p>왕상 21:27,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베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p>
자녀와 나눔	<p>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었나요? 그렇다면, 그때의 기분을 설명해 보세요.</p> <p>(인간이 무엇인가를 할수 있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기 때문임을 설명해 주세요. 또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지만, 모든 것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음을 설명해 주세요. 참고, 잠언 16:9, 19:21. 이러한 예로, 일기예보, 자연재해 등을 설명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시인할때 가능한 것임을, 이것이 겸손한 것임을 나누어 주세요.)</p>